

---

碩士學位論文

日本語 複合動詞에 관한 考察  
-局面動詞를 中心으로-

指導教授 金勝漢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田海心

1998年 8月

# 日本語 複合動詞에 관한 考察

- 局面動詞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金勝漢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提出者 田海心



田海心の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8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국문초록>

日本語 複合動詞에 관한 考察  
- 局面動詞를 中心으로 -

田 海 心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勝 漢

일본어에서 「동사연용형+동사」의 결합으로 된 연용형복합동사(連用形複合動詞)는, 전향동사와 후향동사로 나눌 수 있다. 연용형복합동사의 구성관계는 寺村秀夫(테라무라히데오)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전·후향동사가 본동사일 때의 의미 또는 문법적 특징을 유지하고 있으면 자립동사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속동사이다.

「자립동사(V<sub>1</sub>+부속동사(v<sub>2</sub>))」형(形)에서, 후향동사「v<sub>2</sub>」중에 「~始める, ~出す, ~かける, ~かかる」는 개시(開始)의 국면(局面)을 나타내고 「~続ける, ~続く, ~通す」는 계속(繼續)의 국면을 나타낸다. 그리고 「~終わる, ~終える, ~上げる, ~上がる, ~やむ」는 <종료(終了)>의 국면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부속동사중에서 동작·사항의 <개시>, <계속>, <종료>의 국면을 나타내는 것을 국면동사(局面動詞)라고 한다. 국면동사는 계속적인 동작·사항을 나타내는 전향동사에 접속한다. 전향동사가 순간동사일 경우는 동작의 과정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면을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순간동사도 그 동작주체가 복수주체(複數主体)이면 국면을 나타낼 수 있다.

국면동사는 계속동사와 순간동사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용법을 나타낸다.

- (1) <시작>의 국면을 나타내는 「～始める」은 동작·사항이 서서히 시작됨을 나타내고, 「～出す」는 갑자기 시작됨을 나타낸다.
- (2) 「～かける」는 개시된 동작·사항이 무엇인가에 의해 중단됨을 나타내고, 「～かかる」는 순간동사에 접속하여 개시 일보직전에 달해 있음을 나타낸다.
- (3) <계속>을 나타내는 「～続ける」, 「～続く」는 동작·사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通す」는 주체의 의지적 계속행위를 나타낸다.
- (4) <종료>를 나타내는 「～終わる」는 계속 이어져 오던 동작·사항의 종료를 나타내고, 「～終わる」는 동작주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종료함을 나타낸다.
- (5) 「～上げる」는 동작의 종료와 동시에 대상물의 완료를 나타내고 「～上がる」는 대상물의 완료된 상태를 나타낸다.
- (6) 「～やむ」는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동사에 한정적으로 접속하여 동작·사항이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을 나타낸다.



## 목 차

|                          |    |
|--------------------------|----|
| 국문초록                     | i  |
| <b>I. 서론</b>             | 1  |
| <b>II. 복합동사</b>          | 3  |
| 2.1 복합동사의 구성             | 3  |
| 2.2 연용형복합동사              | 5  |
| 2.2.1 연용형복합동사의 분류        | 5  |
| 2.2.2 연용형복합동사의 특징        | 6  |
| <b>III. 국면동사</b>         | 16 |
| 3.1 개시                   | 16 |
| 3.1.1 「～始める」             | 16 |
| 3.1.2 「～出す」              | 23 |
| 3.1.3 「～始める」와 「～出す」의 비교  | 27 |
| 3.1.4 「～かける」             | 28 |
| 3.1.5 「～かかる」             | 30 |
| 3.1.6 「～かける」와 「～かかる」의 비교 | 31 |
| 3.1.7 전향동사와의 접속형태        | 32 |
| 3.2 계속                   | 33 |
| 3.2.1 「～続ける」             | 33 |
| 3.2.2 「～続く」              | 36 |
| 3.2.3 「～通す」              | 37 |
| 3.2.4 전향동사와의 접속형태        | 40 |

|                          |    |
|--------------------------|----|
| 3.3 終了                   | 40 |
| 3.3.1 「～終わる」             | 40 |
| 3.3.2 「～終わる」             | 42 |
| 3.3.3 「～終わる」와 「～終わる」의 비교 | 44 |
| 3.3.4 「～上げる」             | 45 |
| 3.3.5 「～上がる」             | 46 |
| 3.3.6 「～上げる」와 「～上がる」의 비교 | 48 |
| 3.3.7 「～やむ」              | 48 |
| 3.3.8 전향동사와의 접속형태        | 49 |
| <b>VI. 결론</b>            | 51 |
| 참고문헌                     | 53 |
| Abstract                 | 56 |

## I. 서론

복합동사 중에서 동사와 동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동사는 전향동사(V<sub>1</sub>)와, 후향동사(V<sub>2</sub>)로 나눌 수 있다. 「押し+開ける, 食べ+始める」처럼 V<sub>1</sub>이 연용형(連用形)인 경우와 「開けておく, 食べてみる」와 같이 V<sub>1</sub>이 「て」형(形)인 경우가 있다. 일본어 학습자가 「동사연용형+동사」형의 복합동사 개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연용형복합동사(連用形複合動詞)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향동사와 후향동사의 구성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전·후향동사의 구성관계에 대해서, 山本清隆(야마모토키요타카; 1984)는 격지배 관점에서 전향동사와 후향동사 본래의 격성이 복합동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복합동사의 격지배 형태에 따라서 ① I類(복합동사의 격성분은 전향·후향동사의 격을 양쪽 다 포함함) ② II類(복합동사의 격성분은 전향동사의 격과 일치함) ③ III類(복합동사의 격성분은 후향동사의 격과 일치함) ④ IV類(복합동사의 격성분은 전·후향동사 어느 쪽의 격과도 일치하지 않음)의 4類로 분류하고 있다.

寺村秀夫(테라무라히데오; 1969, 1984)는 전·후향동사가 본동사로서의 의미·문법적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립어와 부속어로 나누고, ①자립동사+자립동사 ②자립동사+부속동사 ③부속동사+자립동사 ④부속동사+부속동사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복합동사의 구성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寺村秀夫의 분류기준에 따라서 전·후향의 구성관계를 자세히 살펴 보려고 한다. 寺村秀夫의

4가지 분류에서 「자립동사(V<sub>1</sub>)+부속동사(v<sub>2</sub>)」형(形)의 복합동사는 부속동사가 본동사일 때의 의미 또는 문법적 특징을 상실해 버린 경우이다. 이 부속동사(v<sub>2</sub>)중에서 동작·사항의 <개시(開始)>, <계속(繼續)>, <종료(終了)>의 국면을 나타내는 것을 국면동사(局面動詞)라고 한다<sup>1)</sup>.

이 논문에서는 국면동사가 접속할 수 있는 전향동사는 어떤 문법적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살피고, 국면동사가 전향동사에 접속하였을 때 그 국면동사의 의미·용법상의 특징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자료·용례는 일본의 잡지, 신문, 일본중학국어, 소설, 교양서등의 작품에서 발췌하였다.



---

1) 高橋太郎(1994), 『動詞の研究』 むぎ書房 p. 240  
「しはじめる」, 「しつづける」, 「しおわる」는 각각 운동의 시발(始發), 지속(持續), 종료(終了)의 국면(局面)이 되는 동작을 나타낸다.



## II. 복합동사

### 2.1 복합동사의 구성

최소 2개의 실질적 형태소(形態素)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법적 기능과 의미를 갖는 큰 단위를 형성할 때 그 통합을 복합어<sup>2)</sup>라고 한다. 복합어 중에서도 그 실질적 형태소 2개가 모두 동사이거나, 혹은 후부(後部) 형태소(形態素)가 동사이고, 형성되어진 복합어 자체가 하나의 동사로서 문법적 성질을 갖는 것을 복합동사라고 부른다.

일본어 복합동사는 전항 형태소(形態素)의 문법적 특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2.1.1 동사て형(形)+동사

(1) a. 君が言う事がだんだんわかってきた。

b. お菓子をぜんぶ食べてしまった。

(1a. b)의 「わかってくる, 食べてしまう」는 형식적으로는 두 단어로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단어처럼 쓰이고 있다. 「て」 뒤에 오는 동사 (1a. b) 「くる, しまう」는 본래의 동사로서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추상화되어 있다. (1a. b) 「くる, しまう」와 같은 동사는 「て」 앞의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라고 하여 보조동사(補助動詞)라고 부른다<sup>3)</sup>.

2) 新美和昭, 山浦洋 (1995), 「複合動詞」, 荒竹出版社 pp. 17~65  
3) 鈴木重幸 (1972), 「日本語文法・形態論」 p. 373

## 2.1.2 동사연용형+동사

동사연용형(動詞連用形)에 동사가 접속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동사처럼 이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복합동사를 연용형복합동사(連用形複合動詞)라고 한다.

(2) 読み始める、読み終わる、読み通す、立ちはたらく、飲みすぎる……

## 2.1.3 명사+동사

명사와 동사가 결합해서, 복합동사를 만드는 경우이다. 이것은 보어<sup>4)</sup>의 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裏を返す→裏返す、役に立つ→役立つ、気が付く→気付く……

## 2.1.4 형용사+동사

형용사와 동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동사이다. 이 경우는 「형용사어간+동사」의 형을 취한다.

(4) 遠く避ける→遠避ける、高く鳴る→高鳴る、近く寄る→近寄る……

## 2.1.5 부사+동사

부사와 ㄱ변(変)동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동사이다.

---

4) 吉川武時 (1989), 『日本語文法入門』 アルク p. 11 참조  
「机の上に本を置く」에서 「机の上に」「本を」는 동사「置く」의 의미를 보충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보어(補語)라고 한다. 보어는 「명사+조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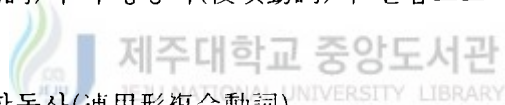
- (5) a. 彼女の姿が目の前にちらちらして仕事が手に付かなかった。  
 b. 今日は不快指数70で、皆気持ちがいらいらしている。  
 c. どう? ちょっとその邊をぶらぶらしてこないか?

이상과 같이, 일본어 복합동사는 전항의 문법적 성격 즉, 품사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5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 2.1.2 동사연용형+동사: 読み始める、読み終わる……

인 연용형복합동사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연용형복합동사는 전항동사(前項動詞)와 후항동사(後項動詞)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 2.2 연용형복합동사(連用形複合動詞)

#### 2.2.1 연용형복합동사의 분류

寺村秀夫(1984)<sup>5)</sup>는 일본어의 연용형복합동사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각자 단독으로 사용될 때의 의미와 문법적 특징이 복합동사 속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을 V(자립동사-以下 대문자 V로 표기함), 단독으로 사용될 때와는 전혀, 혹은 상당히 다른 것을 v(부속동사-以下 소문자 v로 표기함)로 나타내기로 한다.

5) 寺村秀夫(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II』くろしお出版 p. 167

- ① V<sub>1</sub>+V<sub>2</sub> : 呼び入れる, 握りつぶす, 殴り殺す, 持ち出す
- ② V<sub>1</sub>+v<sub>2</sub> : 降り始める, 読み終わる, 泣き出す, 走りこむ
- ③ v<sub>1</sub>+V<sub>2</sub> : 取り押さえる, 打ち眺める, 引き返す
- ④ v<sub>1</sub>+v<sub>2</sub> : 払い下げる, (仲を)取りもつ, (芸を)仕こむ

## 2.2.2 연용형 복합동사의 특징

### 2.2.2.1 V<sub>1</sub>+V<sub>2</sub>형

#### 1) 의미적 특징

- (6) a. 金庫を持ち出す。  
a' 金庫を持って出す。

- (7) a. Aを殴り殺す。  
a'. Aを殴って殺す。

- (8) a. 犬を打ち殺す。  
a'. 犬を打って殺す。

복합동사 (6a, 7a, 8a)의 「持ち出す, 殴り殺す, 打ち殺す」는 전항동사를 て형(形)으로 변형하여, (6a', 7a', 8a')에서 처럼 「持って出す, 殴って殺す, 打って殺す」와 같이 「V<sub>1</sub>して V<sub>2</sub>する」라고 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

(6a) 「持ち出す」의 「持つ」는 「出す」하는 방법, (7a) 「殴り殺す」의 「殴る」는 「殺す」하는 방법, (8a) 「打ち殺す」의 「打つ」는 「殺す」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동사의 결합관계를 보면, 전항동사는 방법을 나타내고 후항동사는 그 결과를 나타낸다. 전항동사는 수식어가 되고, 후항동사는 피수식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의미상의 관계에서 (6a, 7a, 8a)의 전항동사 「持つ, 殴る, 打つ」는 종(從)이 되고, 후항동사 「出す, 殺す」는 주(主)의 관계가 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태적(態的) 특징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사역형(使役形)과 수동형(受動形)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 (9) a. 持ち出させる。  
 b. \*持たせ出す。  
 c. 殴り殺される。  
 d. \*殴られ殺す。

(9a, 9c)에서 처럼, 「(さ)せる」, 「(ら)れる」는 V<sub>2</sub> 「出す」, 「殺す」에는 접속되지만, (9b, 9d)의 V<sub>1</sub> 「持つ, 殴る」에는 접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도 V<sub>1</sub>+V<sub>2</sub>의 결합에서 V<sub>1</sub>이 종(從)이 되고, V<sub>2</sub>는 주(主)인 관계를 알 수 있다.

- (10) a. 飛び跳ねる → 飛んだり跳ねたりする。  
 b. 泣き叫ぶ → 泣いたり叫んだりする。

(10a, b)와 같이 V<sub>1</sub>과 V<sub>2</sub>의 사이에 종속관계가 없는 두개의 동사가 대등관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는 결합도 있다. 이 경우 복합동사를 「~たり~たり する」라고 하는 형으로 의미해석이 가능하다.

## 2) 문법적 특징

전·후향동사의 격지배 관계를 살펴 보면

- (11) a. 作業員が機械を押している。  
b. 作業員が機械を地下から地上へ上げている。  
c. 作業員が機械を地下から地上へ押し上げている。

(塚本秀樹 1993: p230)

- (12) a. もし、あなたが生まれるとしたら…  
b. もし、あなたが男から女に変わったとしたら…  
c. もし、あなたが男から女に生まれかわったとしたら…

(塚本秀樹 1993: p231)

(11a)의 「押す」는 「が, を」의 격조사를 취하는 타동사이고, (11b)의 「上げる」는 「移動」의 뜻을 가진 타동사이기 때문에 격조사 「が, を」에 기점을 나타내는 격조사 「から」와 방향을 나타내는 격조사 「へ」도 취한다. (11c)의 복합동사 「押し上げる」의 경우 전향동사 「押す」와 후향동사 「上げる」의 모든 격조사를 취하여, 「が, を, から, へ」라고 하는 4개의 격조사를 취하고 있다. (12a)의 「生まれる」는 격조사 「が」를 취하며, (12b)의 「変わる」는 격조사 「が」와 변화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격조사 「に」, 경우에 따라서는 변화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격조사 「から」도 요구한다. (12c)와 같이 복합동사 「生まれ変わる」는 전향동사의 격조사 「が」와 후향동사의 격조사 「が, から, に」를 모두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이 「V<sub>1</sub>+V<sub>2</sub>」의 복합동사는, 전향동사와 후향동사의 격조사(格助詞)가 전부 유지되고 있다.

#### 2.2.2.2 V<sub>1</sub>+v<sub>2</sub>형

##### 1) 의미적 특징

- (13) a. 本を読み通す。  
b. 本を読む。  
c. \*本を通す。

(13a)의 「読み通す」의 복합동사 전체의 의미에서 보면, 전향동사V<sub>1</sub> 「読む」는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지만, 후향동사v<sub>2</sub> 「通す」는 본래의 의미를 갖고 있지않고, (13c)처럼, 「通す」 만으로는 비문(非文)이 된다. 후향 v<sub>2</sub>의 의미는 단독으로 쓰일 때와는 전혀 다르거나 혹은 상당히 달라진 것이 된다.

「V<sub>1</sub>+v<sub>2</sub>」형에서 후향동사는 본래의 독립적인 의미가 달라지거나 엮어져서 전향동사에 여러 가지 의미를 덧붙여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부속어<sup>6)</sup>라고 한다.

##### 2) 문법적 특징

전·후향동사의 격지배 관점에서 문법적 특징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6) 寺村秀大(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 くろしお出版 p. 170

(14) a. 雨が降り始める。

b. 雨が降る。

c. \*雨が始める。

(15) NHKが放送を始める。

(14b)의 경우에 「降る」는 「が」 격을 취하고, (15)의 경우에 「始める」는 「が, を」 격을 취하고 있다. (14a)의 「降り始める」는 「が」 격을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降る」의 「が」 격과 「~始める」의 「が」 격의 영향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が」 격 앞에 오는 명사의 성질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14b) 「降る」의 경우는, 「が」 격 앞에 「雨」라고 하는 비유정물(非有情物)<sup>7)</sup>이 오고, (15) 「始める」의 경우는, 「が」 격앞에 「NHK」라고 하는 유정물(有情物)<sup>8)</sup>이 온다. (14a)에서와 같이, 「降る」와 「~始める」의 복합어인 「降り始める」의 경우는, 「が」 격 앞에 「雨」라고 하는 비유정물이 왔다. 따라서, (14a)의 「降り始める」는 전항동사 「降る」의 격지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16) a. 友人が本を読み続けた。

b. 友人が本を読む。

c. \*友人が本を続けた。

7) 森田良行(1978), 「基礎日本語」 角川書店 pp. 8~9

인간의 의지적 행위와 관계없는 물건·사항과, 그 자체로 이동을 하는 것(雲, 川の流れ, 嵐風 등)이 주체(主體)인 경우이다.

8) 森田良行(1978), 上掲書, pp. 8~9

의지를 갖는 인간, 또는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물건이 주체(主體)가 되는 것이다.



(17) 主人が家業を続ける。

(16b)의 「読む」은 「が, を」격을 취하며, (17)의 「続ける」도 「が, を」격을 취한다. (16a)의 「読み続ける」은 「が, を」격을 취하고 있어서, 「読む」와 「続ける」의 양쪽 영향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を」격 앞에 오는 명사를 비교하여 보면 그 성질이 서로 다를 수 있다. (16b)의 「読む」은 「を」격 앞에 「本」이라고 하는 보통명사가 오고, 「読む」와 「~続ける」의 복합어인 「読み続ける」의 경우도 (16b)에서와 같이, 「を」격 앞에 「本」이라고 하는 보통명사가 왔다. 따라서, 「読み続ける」에서는 전향동사 「読む」의 격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18) a. ベルが鳴り終わった。

b. ベルが鳴った。

c. \*ベルが終わった。



(19) a. 戦争が終わる。

b. 先生が話を終わりました。

(18b)에서, 「鳴る」은 「が」격을 취하는 자동사이다. (19a. b)와 같이, 「終わる」은 자동사·타동사를 겸해서 쓰이기 때문에 자동사일 때는 격조사 「が」를 취하고, 타동사일 때는, (19b)에서 처럼 격조사 「が, を」를 취한다. 그러나 「鳴る, 終わる」에서 각각의 「が」격 앞에 오는 명사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 (19a. b)에서 처럼, 「終わる」은 「戦争, 話」와 같은 추상명사가 오고, (18b)에서 처럼, 「鳴る」

는 「ベル」와 같은 보통명사가 온다. (18a)와 같이, 「鳴る」와 「～終わる」의 복합어인 「鳴り終わる」는 「が」격을 취하고 있고, 「が」격 앞의 명사는 보통명사이다. (18a)의 「鳴り終わる」는 전향동사 「鳴る」의 격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8a)의 「鳴り終わる」의 경우, 전향동사 「鳴る」는 본래의 문법적 특징을 유지하고 있으나, 후향동사 「～終わる」는 본래의 문법적인 성질이 잃어져서 부속어로 쓰여지고 있다.

이와 같이 「V<sub>1</sub>+V<sub>2</sub>」형에서 V<sub>2</sub>의 의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을지라도, 문법적 특징을 상실해 버려서 V<sub>2</sub>가 부속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태격(態的)특징에서도 나타난다.

(20) 日本は外国から世界一安全な国と信じられてきたが、サリン事件などで恐怖の国と思われ始めているらしい。 (新潮 95.7)

(21) いずれにせよ もうたくさんだ。神がどうのこうの聞かされ続け、  
大佐のいらいらは極限にきていた。 (時間の砂(下))

(22) ~工場内の十箇所に設けられたスピーカーから流れるモーツァルトの音楽を聴かせ続けた。 (文春 91.1 p466)

(20)의 전향동사 「思う」에는 수동형(受動形) 「れる」가 접속하고, (21)의 전향동사 「聞く」에는 「される」가 접속하고, (22)의 전향동사 「流く」에는 사역형(使役形) 「させる」가 접속한다. 그러나 후향

동사 (20)의 「～始める」, (21, 22)의 「～続ける」에는, 수동형(受動形) 「(ら)れる」와 사역형(使役形) 「(さ)せる」의 접속은 불가능하다. 이는 전향동사가 문법적 특징을 유지하고 있지만, 후향동사는 본동사 일때 가지고 있던 문법적 성질이 약해져서 부속동사가 된 것을 나타낸다.

### 2.2.2.3 v<sub>1</sub>+V<sub>2</sub>형

#### 1) 의미적 특징

- (23) a. 太郎は東京に引っ越した.  
b. \*太郎は東京に引いた.  
c. 太郎は東京に越した.

(23a)와 같이 「引っ越す」의 의미는 「引く」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23c) 「越す」와는 일치한다. 「v<sub>1</sub>+V<sub>2</sub>」형은 후향동사가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 2) 문법적 특징

- (24) a. 波が海岸に打ち寄せる.  
b. \*波が海岸に打つ.  
c. 波が海岸に寄せる.
- (25) a. 雨が窓を打つ.  
b. 荒波が岩に寄せる.

(25a. b)와 같이 「打つ」는 격조사 「が, を」를 취하고, 「寄せる」는 격조사 「が, に」를 취한다. (24a) 「打ち寄せる」의 앞에는 격조사 「が, に」가 와서 후행동사 「寄せる」의 격을 취했다. 따라서, (24a)의 「打ち寄せる」는 후행동사가 격지배를 하고 있다.

#### 2.2.2.4 v+v형

##### 1) 의미적 특징

- (26) a. 犬に芸をしこむ.  
 b. \*犬に芸をする.  
 c. \*犬に芸をこむ.

(26a)의 「しこむ」는 전·후행동사 모두 「する」나 「こむ」가 본래 가지고 있는 어느 쪽의 의미도 갖고 있지 않다.

- (27) a. 警察が事態収拾にのりだした.  
 b. \*警察が事態収拾にのる.  
 c. \*警察が事態収拾にだす.

- (28) a. チンパンジーが自転車にのっている.  
 b. 奇術師がそでから鳩を出す.

(28a. b)의 「のる」는 「が, に」격을 취하고, 「だす」는 「が, を」격과 기점을 나타내는 「から」격을 취한다. 「のる」와 「だす」의 복합어인 「のりだす」는, (27a)에서 처럼, 「が, に」격을 취

하여서, 「のる」의 격체제와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のりだす」와 「のる」는 「に」격 앞에 오는 명사의 성격이 다르다. (28a)에서 처럼, 「乗る」는 격조사 「に」앞에 오는 명사가 「自転車」와 같은 「탈것」이 오지만, 「のりだす」의 격조사 「に」앞에 오는 명사는 「事態收拾」와 같은 추상명사가 왔다. 따라서, 「のりだす」의 「に」격은, 「のる」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복합동사는 전체로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어화(一語化), 숙어화(熟語化)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III. 국면동사(局面動詞)

II복합동사에서 연용형복합동사(連用形複合動詞)의 의미·문법적 특징에 대해 살펴 보았다. 연용형 복합동사 중에서도 「V<sub>1</sub>+v<sub>2</sub>」형의 경우, 후항동사 「v<sub>2</sub>」가 시간의 국면(局面)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개시(開始)-계속(繼續)-종료(終了)>라고 하는 동작 과정의 국면(局面)의 변화를 나타내는 후항동사 「v<sub>2</sub>」를 국면동사(局面動詞)라고 한다.

복합동사의 후항동사에 나타내는 국면(局面:phase)을 종류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시(開始) → ~始める, ~出す, ~かける, ~かかる
2. 계속(繼續) → ~続ける, ~続く, ~通す
3. 종료(終了) → ~終わる, ~終える, ~上げる, ~上がる, ~やむ

예를 들어 「本を読む」라는 동작은, 시간적인 국면으로 분할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전체동작이다. 동작의 변화 국면은 <개시(開始)-계속(繼續)-종료(終了)>라고 하는 시간적인 국면으로 분할하면, 다음과 같이 하위분할(下位分割)할 수 있다.

<本を読み始める> - <本を読み続ける> - <本を読み終わる>

#### 3.1 개시(開始)

##### 3.1.1 「~始める」

金田 春彦(킨다이치하루히코)에 의하면 「~始める」는 계속동사에 잘 접속하지만 순간동사와 상태동사, 제4종동사(第4種動詞)에는 잘 접속하지 않는다<sup>9)</sup>. 「~始める」의 어휘적인 의미는 기본적으로 「어떤 동작을 시작한다」이다. 무엇인가의 지속과정에 있는 동작의 시작 국면(局面)을 나타낸다. 동작의 시작 국면(局面)이란, 동작이 시작되기 전 상태와 동작이 계속되는 중간에 위치하는 국면(局面)이고, 그 국면(局面) 다음에는 반드시 계속 국면(局面)이 오는 것을 전제로 성립된다. 「~始める」가 접속할 수 있는 동사는 적어도 <개시(開始)>와 <계속(継続)>의 국면(局面)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3.1.1.1 전향동사의 문법적 특징

- (29) a. そのころから'日本'を自称したのかもしれないが、大和王権が正  
式に使いはじめたのは、大室、二年(702)の大室、律令の施行以後  
である。(日本の歴史(古代~南北朝時代))

9) 金田 春彦 (1976), 「國語動詞の分類」 『日本語動詞とアスペクト』 むぎ書房 pp. 7~27 참조.

- ① 계속동사 : 金田 春彦의 동사분류의 기준에 따라 「~ている」를 붙이면, 그 동작·작용이 진행중인 것을 나타낸다. (読む, 食べる, 歩く, 降る…)
- ② 순간동사 : 동작·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지만, 그 동작·작용이 순간에 끝나 버리는 동사이다. 「~ている」가 접속하면, 그 동작·작용이 끝난 결과를 나타낸다. (消える, (あかりが)点く, 死ぬ…)
- ③ 상태동사 : 동작·작용을 나타낸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동사이다. 시간을 초월한 관념을 나타낸다. 「~ている」는 접속될 수 없다. (ある, ちがう, できる…)
- ④ 제4종동사 : 시간의 관념을 포함하지 않는, 어떤 상태를 띠는 동사이다. 늘 「~ている」가 접속하여 상태를 나타낸다. (すぐれる, そびえる, ばかげる…)

- b. バ-を出てエレベ-タ-の前に行くと、十人近い人が待っていた。  
 やがてエレベ-タ-が来て、待っていた人から乗り始める。

(小田由美 1987: p20)

(29a. b)와 같이, 「使う」와 같은 계속동사와 「乗る」와 같은 순간동사에 「~始める」가 접속하여 개시를 나타낸다. 「始める」는 「始まる」에 대한 타동사이지만, 개시의 국면동사로서는 「~始める」만이 이용되고, 「~始まる」형 복합동사는 없다. 전향동사는 자·타동사, 의지·무의지 동사와는 상관없으며, <개시>, <계속>, <종료>라고 하는 국면을 갖는 계속동사가 온다. (29b)의 「乗る」와 같은 순간동사는 문장내에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말이 오거나, 동작주체가 복수주체인 경우 「始める」가 접속하여 개시를 나타낼 수 있다.

|       |   |       |
|-------|---|-------|
| 상대동사  | × | + 始める |
| 계속동사  | ○ |       |
| 순간동사  | ○ |       |
| 제4종동사 | × |       |

### 3.1.1.2 「~始める」의 의미용법

#### 1) 계속동사+始める

- (30) a. エレン・スコットは身を乗り出すと、向かい合っているメーガンの手をとった、そして静かに話し始めた。(時間の砂(下))



- b. 歩き始めると、リカルドはグラシエラがかすかにびっこをひいているのに気がついた。 (時間の砂(下))
- c. ちょうどその時、道のむこうの赤ん坊が泣き始めた。 (時間の砂(下))
- d. 財政と貿易の巨大な赤字は増加の一途をたどり、去年の春から不況の風はまちがいなく吹き始め、貧富の差は拡大し、麻薬や暴力は凄じい勢いで広がっている。 (文春 91.4 p111)

(30a. b) 「話す, 歩く」는, 시간적 폭을 가지고 동작을 행하는 의지적인 인간행위를 나타내는 계속동사이다. (30a. b)의 전향동사에 「~始める」가 접속한 「話し始める, 歩き始める」는, 동일주체(同一主体) 「エレン・スコット, 리カルド」에 의한 각각의 단일동작 「話す, 歩く」의 개시를 나타내고 있다.

(30c. d)에서는, 「泣く, 吹く」와 같은 무의지 동사에 「~始める」 접속하여 무의지 동작의 개시와 지속되는 자연현상의 개시를 나타내고 있다.

- (31) a. ホームランを打った。  
 b. ナイフが手を切った。  
 c. 無作為で調査カードを抜いた。
- (32) a. 二人の警察官が降りてきた。彼らは一人で座っている女性に近づくと、尋問らしいことを始めた。ルチアの心臓は早鐘を打ち始めた。 (時間の砂(上))  
 b. 'さあ、どうぞ'と彼女は笑顔で次次に鉄で紐を切り始めた。 (文春 91.1 p86)

- c. すると老婆は……今まで眺めていた残骸の首に両手をかける  
と……、その長い髪の毛を一本ずつ抜き始めた。

(小田由美 1987: p17)

(31a~c)에서 처럼 계속동사인 「打つ, 切る, 抜く」는, 그 동작이 일회(一回)로 끝나 버릴 수도 있다<sup>10)</sup>. 그러나 (32a~c)에서는, 「次次, 一本ずつ」와 같은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서,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계속적 동작을 나타낸다. (32a~c) 「打ち始める, 切り始める, 抜き始める」는 동일 주체에 의한 되풀이 동작의 개시를 나타낸다.

## 2) 순간동사+始める

- (33) a. \*猫は死に始める。

b. \*太郎は立ち始める。

c. \*太郎は乗り始める。

- (34) a. 猫が次々と死に始める。

b. 喧騒の中に時間が来て、だれとなくぼつぼつ席を立ち始める。

(小田由美 1987: p20)

c. バーを出てエレベーターの前に行くと、十人近い人が待っていた。

やがてエレベーターが来て、待っていた人から乗り始める。

(小田由美 1987: p20)

10) 森田良行(1978), 「基礎日本語」 角川書店 p. 105

「死ぬ, 立つ, 乗る」는 시작함과 동시에 끝나 버리는 동작을 나타내는 순간동사이다. 순간동사는 시작함과 동시에 끝나 버리기 때문에, (33a~c)와 같이 기본적으로 「~始める」가 접속될 수 없다.

그러나 (34a~c)에서 처럼, 동작주체가 복수일 경우는, 「死ぬ, 立つ, 乗る」에 「~始める」가 접속하여 복수주체(複数主體)에 의한 연이은 동일동작의 되풀이의 개시(開始)를 나타낼 수 있다.

- (35) a. 今度は、わたしが子供を背に、街灯が間遠く点っているアスファルト道路を降り始めると、‘あの、ちょっと’細君の声に呼びとめられた。 (小田由美 1987: p19)
- b. 移動車がバックで坑道を降り始めた。(カンガル・ノート p35)
- c. るり子は水口を残して自宅へと続く坂道を上り始めた。  
(想い出にかわるまで)

(35a~c)의 「帰る, 降りる, 上る」는 순간동사이다. (35a~c)에서 「わたし, 移動車, るり子」는 복수주체(複数主體)가 아니고, 단일주체(単一主體)이다. 그럼에도 「~始める」가 접속해서 동작의 개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を」 격을 동반해서, 「道路, 坑道, 坂道」라고 하는 공간의 이동을 나타내는 계속동작이 되기 때문이다<sup>11)</sup>. (35a~c)에서 「帰る, 降りる, 上る」는 순간동사이지만, 「を」 격을 동반해서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낼 수 있으며, 「~始める」가 접속하여 이동동작의 개시를 나타낸다.

- (36) a. 冬じゅう吹き続いた北風は、三月に入るところから風向きが南に

11) 森田良行 (1978), 「基礎日本語」 角川書店 p. 68

かわり始め、五月になるとそれが安定した南風となって夏も過ぎて九月まで吹き続く。 (中学国語3 教育出版 p17)

b. 高原が株式会社に勤務し始めて三日目の朝、東京湾開発反対派との話し合い集会があった。 (思い出にかわるまで)

(36a)의 「かわる」은 변화결과의 상태를 나타내는 순간동사로, 보통은 「~始める」가 접속하여 동작의 개시라는 국면을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36a)에서 처럼, 「三月に入るところから~ 5月になると」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를 갖는 표현이 와서 움직임이 지속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36b)의 「勤務する」도 순간동사이기 때문에 「~始める」가 접속하여 개시를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三日目」라고 하는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와서 계속 행위를 나타낸다<sup>12)</sup>.

(36a. b)에서 처럼, 기간을 동반한 순간동사 「かわる, 勤務する」에 「~始める」가 접속하여 지속되는 동작·사항의 개시를 나타낸다.

(37) a. 桜のつぼみがそろそろふくらみ始めた。 (中学国語1 光村図書 p40)

b. ゆっくり空が白み始めた。 (カンガル・ノート p32)

(37a. b)의 「ふくらむ, 白む」는 순간동사이며, 동사의 어성(語性)이 서서히 변화해 간다고 하는 점차성(漸次性)을 갖고 있다. 문맥에 따라서는 서서히 변화한다고 하는 동작의 지속을 나타낼 수 있다. 특

12) 森田良行 (1978), 前掲書 p. 304

히 (37a. b)와 같은 「そろそろ, ゆっくり」라고 하는, 서서히 지속됨을 나타내는 부사가 와서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37a. b)의 「ふくらみ始める, 白み始める」는 서서히 변화가 시작됨을 나타낸다.

### 3) 상태동사, 제4종동사+始める

- (38) a. \*弟がい始める。  
 b. \*先生は偉いところがあり始める。  
 c. \*鼻緒の二本が左右で色が違い始める。  
 d. \*稼げ始めるかしら。  
 e. \*高い山がそびえはじめている。

(38a~c)와 같이, 시간관념을 초월한 상태동사(状態動詞) 「いる, ある, 違う」, (38d)의 가능동사(可能動詞) 「稼げる」와, (38e)의 제4종동사(第4種動詞)<sup>13)</sup> 「そびえる」에는 접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동작의 과정을 갖지 않는 동사는, 「~始める」가 접속하여 개시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 3.1.2 「~出す」

#### 3.1.2.1 전향동사의 문법적 성격

- (39) a. その時だ..さあっと, 早くも足もとに水がうねってきた. それま

13) 寺村秀夫(1987),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II』くろしお出版 pp. 137~142  
 寺村는 제4종동사를 「형용사적인 동사」라고 부르고 있다.

でじっと立ち止まっていたホンシュウは水が押し寄せてきたの  
を見ると、にわかになんげんと歩きだした。

(中学国語 教育出版 p99)

- b. 静かな日曜日の朝、ラモン・アコーカと新妻が村の広場のカフェ  
で コーヒーを飲んでいると、突然、バスク人のデモ隊が広場に  
集まりだした。 (時間の砂(上))

(39a. b)와 같이 「~出す」는 「歩く」와 같은 계속동사와 「集  
まる」와 같은 순간동사에 접속하여 개시를 나타낸다. 「出す」가 본래  
는 이동을 나타내는 타동사이지만, 복합동사의 후항요소로서 개시를  
나타내는 「~出す」는 「~始める」와 마찬가지로 자·타동사, 의지·  
무의지 동사에 상관없이 동작·사항의 계속을 나타내는 동사에 접속한  
다. 순간동사일지라도 시간적 폭을 갖고 계속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순간동사에도 접속한다.

|       |   |      |
|-------|---|------|
| 상태동사  | × | + 出す |
| 계속동사  | ○ |      |
| 순간동사  | ○ |      |
| 제4종동사 | × |      |

### 3.1.2.2 「~出す」의 의미용법

#### 1) 계속동사+出す

- (40) a. その時だ。さあっと、早くも足もとに水がうねってきた。それ  
までじっと立ち止まっていたホンシュウは水が押し寄せてきた

のを見ると、にわかにずんずんと歩きだした。

(中学国語1 教育出版 p99)

b. アンパロはしばらくメーガンを見ていたが急に笑い出した。

(時間の砂(下))

(40a. b)의 「歩く, 笑う」는 계속동사이다. 이 계속동사 「歩く, 笑う」에 「~出す」가 접속하여 동작의 개시를 나타낸다. 그 개시 방법은 서서히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にわか

に, 急に」와 같은 부사와 잘 어울리는 것으로 보아 동작이 갑자기 개시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속동사+出す」가 어떤 사항의 갑작스러운 개시를 나타내는 것은, 「出す」의 본래의 의미인 내부에서 외부로의 이동현상(移動現象)이 결과적으로 새로운 상황의 시작, 개시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41) a. 最後にはご主人が怒り出して、'女房をこんなふうにして'とい  
い、本部に電話をし始めたほどでした。 (新潮 96.7.13)

b. このうち二千億円が大阪の中小企業向けの金融会社一社に融資  
され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ために金融機関があわて出したのだ  
という。 (文春 91.4 p231)

c. しばらく鎮まっていた向こうの岸の火が、いつのまにか狂い出  
した。 (中学国語3 光村図書 p142)

(41a. b)의 「怒る, あわてる」는 심리적인 현상으로, 의지적인 동작이 아니라 갑작스런 감정의 노출을 나타낸다. (41c)의 「狂う」는 불길미 미친듯이 타오르는 것을 비유한 표현으로 역시 의지적인 동

작이 아니다. (41a~c)의 「怒り出す, あわて出す, 狂い出す」는 인위적인 힘의 작용이라고 하기 보다 안에서 밖으로의 갑작스런 표출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出す」는 무의지적이고 자연발생적인 동사에 접속하여 돌발성이 강하고 자연발생적인 개시를 나타낼 수 있다.<sup>14)</sup>

2) 순간동사+出す

「~出す」가 「~始める」와 마찬가지로 순간동사에 접속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42) a. 湖の魚が死に出した。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II p175)

b. 海外で多数の試験管ベビーが生まれ出した昨年初めあたりから…  
(読売 82.3.28)

c. 静かな日曜日の朝、ラモン・アコーカと新妻が村の広場のカフェでコーヒーを飲んでいると、突然、バスク人のデモ隊が広場に集まりだした. (時間の砂(上))

(42a~c)의 「死ぬ, 生まれる, 集まる」는 시작함과 동시에 끝나 버리는 순간동사여서 동작의 과정중의 한 국면인 개시를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동작주체가 복수주체일 경우는, 「~出す」가 순간동사에 접속하여 복수주체의 잇달은 동작개시를 나타낼 수 있다. (42a~c)에서 처럼, 복수주체 「湖の魚, 多数の試験管のベビー, バスク人のデモ隊」가 와서, 복수주체가 잇달아서 「死ぬ, 生まれる, 集まる」한다고

14) 姫野昌子(1977), 「複合動詞「~出る」と「~出す」」 『日本語學校論集』4號 東京外國語大學校外國語學部附屬日本語學校 p. 89



하는 지속적인 동작이 된다.

(42a~c)는 「~出す」가 순간동사에 접속하여 복수주체의 잇달은 동작 개시를 나타내고 있다.

### 3.1.3 「~始める」와 「~出す」의 비교

「~始める」와 「~出す」는 모두, 전향동사에 접속하여, 전향동사의 개시를 나타낸다. 그러나 문(文)에 따라서는, 「~始める」와 「~出す」의 접속이 한쪽은 자연스러운데, 다른 한쪽은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43) a. ゆっくり空が白み始めた。 (カンガル・ノート p32)

b. \*ゆっくり空が白み出した。

(44) a. 桜のつぼみがそろそろふくらみ始めた。

(中学国語1 光村図書 p40)

b. \*桜のつぼみがそろそろふくらみ出した。

(43a, 44a)의 「白み始める, ふくらみ始める」를, (43b, 44b)에서 처럼, 「白み出す, ふくらみ出す」로 바꾸면 비문이 된다. 이것은 부사 「ゆっくり, そろそろ」가 「~始める」와는 잘 어울리나, 「~出す」와는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45) a. にわかにずんずんと歩き出した。

b. \*にわかにずんずんと歩き始めた。

(中学国語1 教育出版 p99)

(46) a. アンパロはしばらくメーガンを見ていたが急に笑い出した。

b. \*アンパロはしばらくメーガンを見ていたが急に笑い始めた。

(時間の砂(下))

(45a, 46a)의 「歩き出す, 笑い出す」를, (45b, 46b)처럼 「歩き始める, 笑い始める」로 바꾸면 비문이 된다. 이것은, 부사 「にわかに, 急に」는 「~出す」와는 함께 쓰일 수 있으나, 「~始める」와는 함께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ゆっくり, そろそろ」와 잘 어울리는 「~始める」는 동작·사항이 서서히 시작됨을 나타내고, 「にわかに, 急に」와 잘 어울리는 「~出す」는 동작·사항이 갑작스럽게 시작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3.1.4. 「~かける」

#### 3.1.4.1 전향동사의 문법적 성격

(47) a. 吉宗は、為政者の立場からすれば、揺らぎかけた幕藩体制の再建と封建秩序の再編に成果をあげた‘中興の英主’ではある～。

(日本の歴史(室町・戦国～江戸時代))

b. 桜の花がさきかけていたのに、雪が降ってきた。

(複合動詞 p78)

(47a, b)에서 처럼 「~かける」는 「揺らぐ」와 같은 계속동사나 「さく」와 같은 순간동사에 접속하여 개시를 나타낸다<sup>15)</sup>.

15) 新美和昭·山浦洋一(1995), 「複合動詞」 荒竹出版社. p. 77 참조.

- ① 「계속동사+かける」의 개시는 개시된 직후 전향동사가 무엇인가에 의해 동작·사항이 중단하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 ② 「순간동사+かける」의 개시는 ‘어떤 동작·사항이 실현되기 일보직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         |       |
|---------|-------|
| 상태동사 ×  | + かける |
| 계속동사 ○  |       |
| 순간동사 ○  |       |
| 제4종동사 × |       |

### 3.1.4.2 「～かける」의 의미용법

#### 1) 계속동사+かける

- (48) a. つう: ううん、あたしはただ空の上から…(言いかけてはっとする)どう  
 したの? 御飯、もう食べないの? (中学国語3 教育出版 p253)
- b. バスの乗り口のほうへ歩きかけていた父親は、ちょっと驚いた  
 ように立ち止まって、苦笑いした。 (中学国語2 光村図書 p80)
- c. 「ちかごろ鹿はいねえんです。山中にはいちまってでてこね  
 え。」それなら山にいつて捕まえてこい、と怒りかけたが、無  
 駄だとおもいやめた。 (新潮 96.7.13)

(48a~c)는, 계속동사 「言う, 歩く, 怒る」에 「～かける」가 접속하여 단일주체 「つう, 父親, 私」의 동작 「言う, 歩く, 怒る」의 개시를 나타낸다. 그러나 하나같이 동작은 시작되었지만, 개시된 행위가 다음 행위 「はっとする, 立ち止まる, おもいやめた」로 인하여, 중단된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かける」의 복합동사는 개시는 하지만, 곧 중단되는 것을 나타내는 복합동사라고 할 수 있다.

#### 2) 순간동사+かける

- (49) a. 「赤ん坊は死にかけてます。神父さま、どうしたらいいんでしょうか?」 (時間の砂(下))
- b. 二人が行ってしまうと、ロ빈はシェン-の腕を放し、ずり落ちかけていたぬいぐるみをかかえあげた。(まどろみの夜明 p84)
- c. アラン・タッカーの夢は消えかけていた。 (時間の砂(下))

(49a~c)의 순간동사 「死ぬ, 落ちる, 消える」에 「~かける」가 접속하여 「막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동작이 시작되기 일보직전에 달한 상태를 나타낸다.

「~かける」는 계속동사에 접속하여 동작은 개시 되지만 도중에 중단된 것을 나타내고, 순간동사에 접속하여 동작이 개시되기 일보직전에 달해 있음을 나타낸다.

### 3.1.5 「~かかる」

#### 3.1.5.1 전향동사의 문법적 특징

- (50) 傷跡は遠い者の記憶のように白くなって消えかかっていた。

(時間の砂(上))

「~かける」는 계속동사와 순간동사에 접속하여, 동작·사항의 개시를 나타내었으나, 「~かかる」는 계속동사에는 접속하지 않고, 순간동사에만 접속한다.

|       |   |      |
|-------|---|------|
| 상태동사  | × | +かかる |
| 계속동사  | × |      |
| 순간동사  | ○ |      |
| 제4종동사 | × |      |

### 3.1.5.2 「~かかる」의 의미용법

#### 1) 순간동사+かかる

(51) a. 傷跡は遠い者の記憶のように白くなって消えかかっていた。

(時間の砂(上))

b. 「馬車はいつ出るのでしょうか。せがれが死にかかっていますので、はよ街へ行かんと死に目に会えまい思いましたな。」

(中学国語3 教育出版 p50)

c. そのうち、池の上をさらさらと風が渡って、日が暮れかかる。

(中学国語3 光村図書 p93)



(51a~c)의 「消える,死ぬ,暮れる」는 순간동사이다. 순간동사에 「~かかる」가 접속하여 동작·사향이 시작하기 일보직전에 달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sup>16)</sup>.

### 3.1.6 「~かける」와 「~かかる」의 비교

(52) a. あの人は仕事をやりかけて、どこへ行ったんだろう。(複合動詞 p78)

b. \*あの人は仕事をやりかかって、どこへ行ったんだろう。

16) 新美和昭·山浦洋 · (1995), 「複合動詞」 荒竹出版社 p. 77

(53) a. ベンチに座りかけた時、「ペンキ塗り立て」の文字が目に入った。

(複合動詞p78)

b. 通りかかった人を片っぱしからえじきにする通り魔。(基礎日本語 p155)

(52a, 53a)에서 처럼, 「~かける」는 「やる」와 같은 계속동사와 「座る」와 같은 순간동사에 접속하여 개시를 나타낸다. 「~かかる」는 순간동사에는 접속하지만, 계속동사에는 접속할 수 없다.

(53a, b)에서 처럼, 「~かける」와 「かかる」가 순간동사에 접속했을 때의 의미는 어떤 일이 시작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53a)의 「座りかける」는 「ペンキ塗り立ての文字が目に入った」라고 하는 상황에서, 「座る」하기 직전에 동작·사항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sup>17)</sup>. 그래서 「~かける」는 어떤 동작을 시작하기 직전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 간다고 하는 뜻을 나타낸다.

(53b)의 「通りかかる」는 「通る」하기 직전에 달한 상황에서 주체의 의지로 중단할 수 없다. 「~かかる」는 원래의 상태인 「通る」의 직전 상태로 되돌아 간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는 않다<sup>18)</sup>.

### 3.1.7 전향동사와의 접속형태

전향동사의 종류에 따라 접속되는 후향동사가 각각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접속형태를 표로 정리해 보면, <표1>과 같다.

17) 森田良行 (1978), 「基礎日本語」 角川書店 p. 155

18) 國廣哲彌·紫田武 外 (1982), 「ことばの意味3」 平凡社 pp. 77~78

<표1>

| 전항동사      |      | 후항동사 | ~ 始める ~ 出す ~ かける ~ かかる |   |   |   |
|-----------|------|------|------------------------|---|---|---|
|           |      |      |                        |   |   |   |
| 상태<br>동사  | 要る   |      | ×                      | × | × | × |
|           | ある   |      | ×                      | × | × | × |
| 계속<br>동사  | 読む   |      | ○                      | ○ | ○ | × |
|           | 泣く   |      | ○                      | ○ | ○ | × |
|           | 降る   |      | ○                      | ○ | ○ | × |
| 순간<br>동사  | 死ぬ   |      | ○                      | ○ | ○ | ○ |
|           | 消える  |      | ○                      | ○ | ○ | ○ |
| 제4종<br>동사 | そびえる |      | ×                      | × | × | × |
|           | すぐれる |      | ×                      | × | × | × |

### 3.2. 계속(継続)

#### 3.2.1 「~続ける」

##### 3.2.1.1 전항동사의 문법적 성격

- (54) a. こうした傾向は国際的な調査を含めて、かねてから指摘され、  
日本の教育の課題であり続けた。 (読売 97.9.10)

- b. しばらく飲み続けるうちに十年來の苦しみが薄皮をはぐように消えてゆき、いつのまにか気にならなくなった。(新潮 96.7.20)
- c. 昨日の夕方からのぶちまけたような雨だった。体の奥の方がしんと冷えてくるほどの、気味悪い大量の水がひっきりなしに落ち続けていた。(中学国語1 教育出版 p90)

(54a~c)와 같이 「~続ける」는 상태동사「ある」와 계속동사「飲む」 순간동사「落ちる」에 접속하여 「동작·작용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본동사일 때의 「続ける」의 의미가 후향동사「~続ける」에도 이어져서 계속의 국면을 나타낸다. 자·타동사, 의지·무의지 동사와 상관없이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전향동사에 접속한다.

|       |   |       |
|-------|---|-------|
| 상태동사  | ○ | + 続ける |
| 계속동사  | ○ |       |
| 순간동사  | ○ |       |
| 제4종동사 | × |       |

### 3.2.1.2 「~続ける」의 의미용법

#### 1) 계속동사+続ける

- (55) a. しばらく飲み続けるうちに十年來の苦しみが薄皮をはぐように消えてゆき、いつのまにか気にならなくなった。(新潮 96.7.20)
- b. 昨夜久純はしばし笑い続けたあと、こう言っていた。(新潮 96.7.20)



c. エレンは燃え続けている飛行機に目をやった。(時間の砂(下))

(55a~c)와 같이 계속동사 「飲む, 笑う, 燃える」에 계속동사에 「~続ける」가 접속하여 일정기간 동안 동일주체 「わたし, 久純, 飛行機」의 동작·사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2) 순간동사+続ける

(56) a. 朝から立ち続けていたので、足が棒のようです。

(複合動詞 p82)

b. 私は五分間も座り続けていたら、足が痛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

(複合動詞 p82)

c. たとえる信長が世に出たころ、すでに一世紀以上にわたって農業生産高が上がり続けていて百年前とちがっている。

(文春 91.1 p77)

(56a~c)의 「立つ, 座る, 上がる」는 순간동사이기 때문에 「~続ける」가 접속하여 동작의 계속적인 진행 의미를 나타낼 수는 없다. (56a~c)의 「立ち続ける, 座り続ける, 上がり続ける」는 각각 「朝から, 五分間も, 一世紀にわたって」의 기간동안 「立つ, 座る, 上がる」한 결과의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짐을 나타낸다.

따라서, 순간동사에 「~続ける」가 접속하면, 결과상태의 계속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57) a. 昨日の夕方からのぶちまけたような雨だった。体の奥の方がし  
いと冷えてくるほどの、気味悪い大量の水がひっきりなし

に落ち続けていた。 (中学国語1 教育出版 p90)

- b. 花は一年じゅう交代でさき続けるから、種子は大量にとれる繁栄の花というだけあって、ふやす方法も簡単だった。

(中学国語1 光村図書 p219)

「瞬間동사+続ける」는 동작의 계속을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57a. b)에서 처럼 「大量の水, 花」라고 하는 복수주체가 와서, 물이 계속떨어지는 것과 꽃이 연달아 계속 핀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瞬間동사+続ける」구문에서, 그 동작주체가 복수주체이면, 동작이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3) 상태동사+続ける

- (58) a. こうした傾向は国際的な調査を含めて、かねてから指摘され、

日本の教育の課題であり続けた。 (読売 97.9.10)

(58)의 상태동사 「ある」에 「~続ける」가 접속하여 그 상태가 일정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상태의 계속 국면(局面)을 이끌어 내고 있다.

## 3.2.2 「~続く」

### 3.2.2.1 전향동사의 문법적 성격

- (59) a. 一週間雨が降り続いた。

b. 風が吹き続く。

(59a~b)와 같이 「~続く」는 「降る, 吹く」와 같은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의지성이 없는 계속동사에 한정적으로 접속한다.

### 3.2.2.2 「~続く」의 의미용법

(60) 一週間雨が降り続いた。

(61) 風が吹き続く。

(62) a. 花がさき続ける。

b.\*花がさき続く。

(63) a. 地が揺れ続ける。

b.\*地が揺れ続く。

(60, 61)과 같이 「~続く」는 전향동사, 「降る, 吹く」에 접속하는 정도이고, 그 외는 접속형태를 볼 수 없어서, 예외적인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을 나타내는 국면동사는 대체적으로 「続く」의 타동사 「続ける」가 접속한다.

### 3.2.3 「~通す」

#### 3.2.3.1 전향동사의 문법적특징

(64) a. 馬車は炎天の下を走り通した。並木を抜け、長く続いた小豆ばたけのよこを通り、亜麻ばたけと桑ばたけの間をゆれつつ森の中へ割りこむと、～ (中学国語3 教育出版 p53)

b. 東京・名古屋間ぐらい新幹線で立ち通したって平気ですよ。

(複合動詞 p133)

(64a. b)와 같이, 「~通す」는 「走る」와 같은 계속동사와 「立つ」와 같은 순간동사에 접속하여, 「동작·사항을 끝까지 계속한다」라고 하는 주체의 의지적 계속행위를 나타낸다.

|       |   |
|-------|---|
| 상태동사  | × |
| 계속동사  | ○ |
| 순간동사  | ○ |
| 제4종동사 | × |

+ 通す

### 3.2.3.2 「~通す」의 의미·용법

#### 1) 계속동사+通す

(65) a. あの遠い道を駆け通してきた今までの心細さをふり返ると、いくら大声に泣き続けても足りない気持ちにせまられながら……。

(中学国語1 教育出版 p167)

b. 馬車は炎天の下を走り通した。並木を抜け、長く続いた小豆ばたけのよこを通り、亜麻ばたけと桑ばたけの間をゆれつつ森の中へ割りこむと～。

(中学国語3 教育出版 p53)

c. 一度も中断せずに長篇を読み通した。 (基礎日本語 p372)

(65a~c)의 「駆ける, 走る, 読む」와 같은 의지적 동작에 「通す」가 접속하면, 본동사 「貫通」의 의미로 부터 「계속해서 마지

막까지 한다」고 하는 주체의 의지적 계속행위를 나타낸다.<sup>19)</sup> 따라서 (65a. b)의 「駆け通す, 走り通す」는, 「피로나 게으른 마음, 혹은 주의의 사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관해서 계속달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65c) 「読み通す」의 경우도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읽었다」고 하는 강한 의지성을 나타낸다.

### 3) 순간동사+通す

(66) 東京・名古屋間ぐらい新幹線で立ち通したって平気ですよ。

(複合動詞 p133)

「순간동사+通す」구문(構文)은, 동작의 계속이 아니라, 동작이 끝난 결과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66)의 순간동사 「立つ」에 「通す」가 접속하여 「東京・名古屋」구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서 있는 결과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 3.2.4 전향동사와의 접속형태

전향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続ける」, 「～続く」, 「～通す」의 접속형태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19) 森田良行 (1978), 「基礎日本語」角川書店 p. 372

新美和昭・山浦洋 (1995), 「複合動詞」 荒竹出版社 p. 133

| 전항동사      |      | 후항동사     | ~続ける     | ~続く | ~通す |
|-----------|------|----------|----------|-----|-----|
|           |      | 상태<br>동사 | 要る<br>ある | ×   | ×   |
| 계속<br>동사  | 読む   | ○        | ×        | ○   |     |
|           | 泣く   | ○        | ×        | ○   |     |
|           | 降る   | ○        | ○        | ○   |     |
| 순간<br>동사  | 入る   | ○        | ×        | ○   |     |
|           | 落ちる  | ○        | ×        | ○   |     |
| 제4종<br>동사 | そびえる | ×        | ×        | ×   |     |
|           | すぐれる | ×        | ×        | ×   |     |

### 3.3 종료(終了)

#### 3.3.1 「~終わる」

##### 3.3.1.1 전항동사의 문법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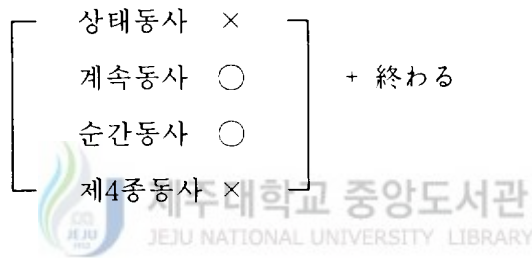
(67) a. ようやく皿も洗い終わり、甲板に上がっていくと、ヨットはもうかなり沖へ出ており、帆を上げてもいいところまで来ていた。

(まどろみの夜明 p102)

b. タラ科植物は、花がさき終わるまで肥料は一切不要です。

(潮 91.3 p369)

(67a. b)에서 처럼 「~終わる」는 「洗う」와 같은 계속동사에 접속한다. 행위를 종료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계속동사 중에도 의지적인 동사에 접속한다. 그러나 무의지 동사일지라도 <개시 - 계속 - 종료>라고 하는 과정의 개념이 분명한 경우는 「~終わる」가 접속하여 종료를 나타낼 수 있다. (67b)는 순간동사 「さく」에 「~終わる」가 접속한 예이다. 복수주체가 오는 경우는 순간동사에 「~終わる」가 접속하여 종료를 나타낸다.



### 3.3.1.2 「~終わる」의 의미용법

#### 1) 계속동사+終わる

(68) a. 베렌드神父가話し終わると、アラン・タッカー-は座ったまま無  
言で考えこんでいた。 (時間の砂(上))

b. だいたい目を通し終わったころ、次号が来るのがまた楽しい。  
(潮 91.3 p443)

c. 벨가鳴り終わると列車は静かに動き始めた。  
(ことばの意味3 p86)

(68a. b) 「話す, 日を通す」와 같은 의지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계속 동사에 「~終わる」가 접속하여 「ベレンド神父, 私」라고 하는 주체가 계속하던 동작·행위의 의지적 종료를 나타낸다. (68c)에서 처럼 무의지 동사 「鳴る」에 접속한 경우는 일정기간 지속하던 동작·사항의 예정된 종료를 나타낸다.

## 2) 순간동사+終わる

(69) タラ科植物は、花がさき終わるまで肥料は一切不要です。

(潮 91.3 p369)

순간동사에 「~終わる」가 접속하여 동작의 종료를 나타낼 수는 없다. 그러나 (69)에서 처럼 동작주체가 복수주체이면, 순간동사에도 「~終わる」가 접속할 수 있다. (69)의 「さき終わる」는 순간동사 「さく」에 「~終わる」가 접속하여, 「여러개의 꽃이 지는 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순간동사에 「~終わる」가 접속한 경우는, 각각 다른 복수주체의 연속적인 동일 동작의 종료를 나타낸다.

### 3.3.2 「~終わる」

#### 3.3.2.1 전향동사의 문법적 성격

(70) 8月2日。とうとう読み終えた。「漱石」などという難しい名前の人の書いたものだから、きっと難しい小説だろうと思って読み始めた。  
(中学国語1 光村図書 P113)



(70)과 같이 「~終える」는 「~終わる」와 마찬가지로, 「読む」와 같은 계속동사에 접속하여 종료를 나타낸다.

|       |   |       |
|-------|---|-------|
| 상태동사  | × | + 終える |
| 계속동사  | ○ |       |
| 순간동사  | × |       |
| 제4종동사 | × |       |

### 3.3.2.2 「~終える」의 의미용법

(71) a. ようやく、書き終え、表書きは、会社の秘書室気付では、紙屑籠に放りこまれかねないことを考え「親展」としたためだ。

(新潮 96.7.20)

b. こうして私は二種類の前提を語り終えた。(仮面の告白 p20)

c. 8月2日。とうとう読み終えた。「漱石」などという難しい名前前の人の書いたものだから、きっと難しい小説だろうと思って読み始めた。

(中学国語1 光村図書 p113)

(71a~c)의 계속동사 「書く,語る,読む」에 「~終える」가 접속하여 계속하던 행위의 종료를 나타내고 있다. 본동사로서의 「終える」가 본래 타동사로서 의지성 있는 동사여서, 「~終える」는 의지성 있는 타동사에 접속하여 특히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고 동작·사향을 끝마쳤다고 하는 강한 의지성을 나타낸다.<sup>20)</sup>

20) 新美和昭·山浦洋 · (1995), 「複合動詞」 荒竹出版社. p. 83 참조.

(71a~c)의 「書き終える, 語り終える, 読み終える」는 주체인 「私」가 「書く, 語る, 読む」하는 행위의 종료를 나타냄에 있어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그 행위를 완료했음을 나타낸다.

### 3.3.3 「~終わる」와 「~終わる」의 비교

(72) a. その本を読み終わったら, 貸してあげませんか。

(複合動詞 p84)

b. 「坊っちゃん」。八月二日。とうとう読み終えた。漱石などという難しい名前の人書いたものだから、きっと難しい小説だろうと思って読み始めた。 (中学国語1 光村凶書 p113)

(73) a. ベルが鳴り終わると列車が静かに動き始めた。

(ことばの意味3 p86)

b. \*ベルが鳴り終わると列車は静かに動き始めた。

(72a. b)와 같이 동작주체가 계속해 오던 동작의 종료를 나타내는 경우는 「~終わる」와 「~終わる」 양쪽 다 주체의 동작종료를 나타내지만, 「~終わる」쪽이 주체의 확고한 종료 의지를 나타낸다.

(73a. b)의 「鳴り終わる」에서 처럼, 주체의 의지적 행위를 나타내지 않는 종료인 경우는, 「~終わる」는 비문(非文)이 된다. 「~終わる」보다 의지성이 약한 「~終わる」는 무의지 동사에 접속하여 계속 진행중인 동작·사항의 예정된 종료를 나타낸다.

---

「~終わる」보다는 「~終わる」를 접속하는 쪽이, 보다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 3.3.4 「～上げる」

#### 3.3.4.1 전향동사의 문법적 성격

(74) 京都の季節がかわっていくさまを織りこんだ本編を書きあげた時、バックに流れていた音楽は何であったか、作者に聞いてみたい思いに駆られた。(新潮 96.8.10)

(74)에서 처럼 「～上げる」는 「書く」와 같은 의지적 계속동사에 접속하여 동작·사향의 변화 결과의 완료를 나타낸다.

|   |       |   |   |       |
|---|-------|---|---|-------|
| [ | 상태동사  | × | ] | + 上げる |
|   | 계속동사  | ○ |   |       |
|   | 순간동사  | × |   |       |
|   | 제4종동사 | × |   |       |

#### 3.3.4.2 「～上げる」의 의미용법

- (75) a. 京都の季節がかわっていくさまをも織りこんだ本編を書きあげた時、バックに流れていた音楽は何であったか、作者に聞いてみたい思いに駆られた。(新潮 96.8.10)
- b. それはな、生きとる鶴の羽根を千枚抜いて織り上げた織り物だ。(中学国語3 教育出版 p244)
- c. 麻原被告を絶対者とする閉鎖的な階級社会を作り上げたことなどが、すでに指摘されている。(読売 96.4.25)

(75a~c)의 「書く, 織る, 作る」와 같이 의지적 행위의 계속동사에 「~上げる」가 접속하여 작업의 종료를 나타낸다. (75a~c)에서의 각각의 대상물 「本編, 織り物, 階級社会」는 재료가 아니라, 다 만들어진 것이다. 즉 완성품이다.

「~上げる」의 동작·행위의 완료는 처음부터 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다 했다고 하는 과정정보보다 대상물을 완료한다고 하는 변화결과의 완료이다. 내용물을 마무리 지었다고 하는 결과 의식이 강하다.

### 3.3.5 「~上がる」

#### 3.3.5.1 전향동사의 문법적 특징

(76) a. 江戸時代の色を再現したという版画が刷りあがったと、テレビ  
 で報じていた. (複合動詞 p136)

b. ~というキャッチフレーズに見合った体制が出来あがっている  
 か、"となるとまだこころもとない。 (読売 97.4.30)

(76)에서 처럼, 「~上がる」는 「刷る」와 같은 계속동사와 「出  
 来る」와 같은 순간동사에 접속하여 완료를 나타낸다.

|       |   |        |
|-------|---|--------|
| 상태동사  | × | } +上がる |
| 계속동사  | ○ |        |
| 순간동사  | ○ |        |
| 제4종동사 | × |        |

### 3.3.5.2 「～上がる」의 의미용법

#### 1) 계속동사+上がる

(77) a. とても奇麗にしあがった。 (基礎日本語 p12)

b. 江戸時代の色を再現したという版画が刷りあがったと、テレビ  
で報じていた。 (複合動詞 p136)

(77)는 계속동사 「する, 刷る」에 「～上がる」가 접속하여 변화의 완료된 상태를 나타낸다. 완료의 상태는 단순히 작품이 마무리 되었다고 하는 완료이기 보다는 (77a)에서 처럼 부사 「きれいに」가 와서 기대대로 작품이 잘 마무리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본동사의 「～上がる」가 최고점에 달해 더 이상 올라 갈 수 없다고 하는 뜻에서 부터 「～あがる」는 「완전히~하다」라고 하는 완료의 정도를 강조하게 된다.

#### 2) 순간동사+上がる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78) a. ~というキャッチフレーズに見合った体制が出来あがっている  
か, となるとまだころもとない。 (読売 97.4.30)

た額をまる出しにして帰ってきた。(中学国語2 光村図書 p71)

b. ~今度も真新しいハンチングのひさしを上げて, はげあがった  
た額をまる出しにして帰ってきた。(中学国語2 光村図書 p71)

(78a)는 순간동사 「出来る」에 「～上がる」가 접속하여 「出来る」의 대상물, 「体制」가 완료된 결과의 상태를 나타낸다. (78b)는

순간동사 「はげる」에 「～上がる」 접속하여 최고조에 달했다고 하는 본동사의 의미에서부터 「はげる」라고 하는 사태가 완전히 행해졌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 3.3.6 「～上げる」와 「～上がる」의 비교

(79) a. それはな、生きとる鶴の羽根を千枚抜いて織り上げた織り物だ。

(中学国語3 教育出版 p244)

b. 「あくる朝にはいつも美しいぬのが織り上がっているのです。」

(姫野昌子 1975: p97)

(79a)에서 처럼, 계속동사 「織る」에 「～上げる」가 접속한 「織り上げる」는 「織る」라고 하는 행위의 종료와 함께 대상물 「織り物」를 완료한 것을 나타낸다. 즉, 대상물에 대한 행위의 완료이다. (79b)의 「織り上がる」는 전체가 자동사로서, 「織り上がる」의 대상물 「ぬの」가 완료된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上がる」는 (79b)와 같이, 완료는 물론이고, 「美しいぬの」라고 하는 것처럼, 그 완성도가 만족할 만하다고 하는것, 기대대로의 작품이 눈앞에 있음을 나타낸다.

### 3.3.7 「～やむ」

#### 3.3.7.1 전향동사의 문법적 성격

(80) 降り始めたかと思うと、いきなり降りやんだんです。 (時間の砂(下))

(80)에서 처럼 「~やむ」는 「降る」와 같은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계속동사에 한정적으로 접속한다.

|         |      |
|---------|------|
| 상태동사 ×  | + やむ |
| 계속동사 ○  |      |
| 순간동사 ×  |      |
| 제4종동사 × |      |

### 3.3.7.2 「~やむ」의 의미용법

(81) a. 「ばためくなじゃ、こりゃあ」

とどなりつけると、とたんに、足もとの河鹿がびたりと鳴きやんだ。  
(中学国語2 光村図書 p71)

b. 降り始めたかと思うと、いきなり降りやんだんです。(時間の砂(下))

c. 風が吹きやむ。

(81a)에서 처럼, 무의지 동사 「鳴く」, (81b. c)의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계속동사 「降る, 吹く」에 「~やむ」가 접속하여 그 동작이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을 나타낸다.

### 3.3.8 전향동사와의 접속형태

전향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終わる」, 「~終える」, 「~上げる」, 「~上がる」, 「~やむ」의 접속형태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 전항동사 / 후항동사 |      | ~終わる ~終える ~上げる ~上がる ~やむ |          |   |   |   |
|-------------|------|-------------------------|----------|---|---|---|
|             |      | 상대<br>동사                | 要る<br>ある | × | × | × |
| 계속<br>동사    | 読む   | ○                       | ○        | ○ | ○ | × |
|             | 走る   | ○                       | ○        | × | × | × |
|             | 降る   | ○                       | ×        | × | × | ○ |
| 순간<br>동사    | さく   | ○                       | ×        | × | × | × |
|             | 出来る  | ○                       | ×        | × | ○ | × |
| 제4종<br>동사   | そびえる | ×                       | ×        | × | × | × |
|             | すぐれる | ×                       | ×        | × | × | × |



## VI. 결론

연용형 복합동사중 「V+v」의 후항동사v 중에 시간을 나타내는 국면동사 「~始める·~出す·~かける·~かかる·~続ける·~続く·~通す·~終わる·~終える·~上げる·~上がる·~やむ」는 전항동사에 접속하여, 각각 <개시>, <계속>, <종료>의 국면을 나타낼 수 있다. 계속동사의 경우는 3개의 국면, <개시>, <계속>, <종료>로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국면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순간동사는 3개의 국면으로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국면을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순간동사라도 주어가 복수(複數)이고, 동작이 어떤 시간내에 행해지고 있는 경우 계속적인 동작·사항으로 볼 수 있어, 국면(局面)을 나타낼 수 있다.

지금까지 고찰한 국면동사(局面動詞)의 의미·용법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始める」와 「~出す」는 모두, 동작·사항의 개시를 나타낸다. 「~始める」는 동작·사항이 서서히 시작됨을 나타내고, 「~出す」는, 동작·사항이 갑작스럽게 시작됨을 나타낸다.
- ② 「~かける」는 계속동사에 접속하여, 개시된 동작·사항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중단되었음을 나타낸다. 순간동사에 접속한 경우는 개시 일보직전에 달해 있음을 나타낸다. 「~かかる」는 계속동사에는 접속하지 않고, 순간동사에 접속하여 동작·사항이 개시 되기 일보직전에 있음을 나타낸다.
- ③ 「~続ける」가 계속동사에 접속하면, 동작·사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순간동사에 접속하면, 동작이 끝난

결과 상태의 계속을 나타낸다.

- ④ 「～続く」는 「降る, 吹く」와 같은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의지성이 없는 계속동사에 한정적으로 접속하여, 그 사항의 계속을 나타낸다.
- ⑤ 「～通す」가 계속동사에 접속하면 주체의 의지적 계속행위를 나타내고, 「～通す」가 순간동사에 접속하면, 동작이 끝난 결과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⑥ 「～終わる」는 계속해 오던 행위의 종료를 나타낸다. 주체의 의지적 종료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예측 가능한 종료인 경우는 무의지 동사에도 접속하여 계속되던 동작·사항의 종료를 나타낼 수 있다.
- ⑦ 「～終わる」는 의지적 계속동사에 접속하여, 주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종료함을 나타낸다.
- ⑧ 「～上げる」는 의지적 계속동사에 접속하여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대상물의 완료를 나타낸다.
- ⑨ 「～上がる」는 의지적 계속동사에 접속하여, 완료된 대상물이 기대했던대로 되어 있다고 하는 완료된 상태를 나타낸다. 순간동사에 접속하여 「완전히 ~했다」라고 하는 완료된 정도를 강조한다.
- ⑩ 「～やむ」는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무의지 동사에 한정적으로 접속하여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을 나타낸다.

## 參考文獻

### 외국문헌

#### <예문출전>

- 安部公房(1996), 「カンガル・ノート」 新潮文庫  
石森延男 外31名(1988), 「日本中學國語1·2·3」 光村出版社  
泉秀樹(1991), 「不思議日本史」 三笠書房  
内館恒夫(1990), 「思い出にかわるまで」 ワニブックス  
梅田卓夫·清水良典外(1986), 「高校生のための文章讀本」 筑摩書房  
小和田哲男(1991), 「日本の歴史がわかる本(古代～南北朝時代)」 三笠書房  
小和田哲男(1991), 「日本の歴史がわかる本(室町·全國～江戸時代)」 三笠書房  
小和田哲男(1991), 「日本の歴史がわかる本(幕末·維新～現代)」 三笠書房  
木下順二 外30名(1988), 「日本中學國語1·2·3」 教育出版  
ケイ·ロビンス,小川洋子(1986), 「まどろみの夜明」 日本メー·ル·オー·ダー  
コレット·ダウリング,木村治美(1986), 「シンデレラ·コンプレックス」 三笠書房  
シドニシェルダン,天馬龍行·氣奉隆(1991), 「時間の砂(上·下)」 アカデミ  
白川浩司 編(1991, 1992), 「文藝春秋」 文藝出版社  
西原賢太郎 編(1991), 「潮」 潮出版社  
松田宏 編(1996), 「新潮」 新潮社  
三島由紀夫 (1952), 「假面の告白」 新潮文庫  
讀賣新聞社 編(1996, 1997) 「讀賣新聞社説」 讀賣新聞社

#### <단행본>

- 荒木雅實·林謙太郎 (1996), 「日本語文法」 鳳書房

- 井口厚夫・井口裕子(1994), 『日本語文法整理』 バベル・プレス
- 影山太郎(1993), 『文法と語形成』 ひつじ書房
- 金田一春彦(1976), 『日本語動詞とアスペクト』 むぎ書房
- 佐藤喜代(1977), 『日本文法要論』 朝倉書店
- 柴田 武 等編(1980), 『ことばの意味(辞書に書いてないこと)』 平凡社
- 鈴木重幸(1972), 『日本語文法・形態論』 むぎ書房
- 鈴木重幸(1972), 『文法と文法指導』 むぎ書房
- 高橋太郎(1994), 『動詞の研究』 むぎ書房
- 武部良明(1953), 『金田一博士 古稀記念言語民俗論叢』 三省堂
- 塚本秀樹(1993), 『日本語の格をめぐる』 くろしお出版
- 寺村秀夫(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II』 くろしお出版
- 新美和昭 等(1987), 『外国人のための日本語例文複合動詞』 荒竹出版社
- 仁田儀雄(1973), 『動詞の格支配』 くろしお出版
- 仁田儀雄(1993), 『日本語の格をめぐる』 くろしお出版
- 益岡隆志(1992),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 三上 章(1972), 『日本語の構文』 くろしお出版
- 三上 章(1972), 『現代語法序説』 くろしお出版
- 森田良行(1978), 『基礎日本語』 角川書店
- 森山卓郎(1989), 『日本語動詞述語文の研究』 明治書院
- 吉川武時(1994), 『日本語文法入門』 アルク

<논문>

- 石井正彦(1993), 『現代語複合動詞の語構造における一觀點』 『日本語學』 第  
2 卷8號. 明治書院

- 今井 認(1993), 「複合動詞後項の多義性に関する認知意味論」 『言語学研究』  
12號. 京都大學
- 奥田靜雄(1978), 「アスペクトの研究をめぐって(上・下)」 『教育國語』 むぎ書房
- 小田由美(1987), 「局面動詞 「～し始める」について」 『横濱國大國語研究』  
4號 横濱國立大學國語國文學會
- 齊藤倫明(1985), 「複合動詞後項の接辭化「返す」の場合を對象として」 『國  
語學』 第140集. 國語學會
- 田邊和子(1985), 「複合動詞の意味構成「～出す」・「～上げる」を中心に」 『  
日本語日本文學』3號 筑波大學國語國文學會
- 塚本秀樹(1987), 「日本語における複合動詞と格支配」 『言語學の視野小泉保  
教授還曆記念論文集』 大學書林
- 長山鳥善郎(1976), 「複合動詞の構造」 鈴木孝夫編 『日本語講座』 第4卷 大  
修館書店
- 林翠芳(1993), 「日本語複合動詞研究の現在」 『同志社國文學』 同志社大學  
國文學會
- 姫野昌子(1975), 「複合動詞「～上がる」と「～上げる」および下降を表す複  
合動詞類」 『日本語學校論集』3號. 東京外國語大學外國  
語學部附屬日本語學校
- 姫野昌子(1977), 「複合動詞「～出る」と「～出す」」 『日本語學校論集』4  
號. 上同
- 姫野昌子(1980), 「複合動詞「～きる」「～ぬく」「～とおす」」 『日本語學  
校論集』7號. 上同

<Abstract>

**A Study of the Compound Verbs of the Japanese Language.**

- With Emphasis on the Phase Verb -

**Jeon, Hae-Shim**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eung-Han**

The continuous use form of the compound verb, which is made by combining the continuous use form of a verb and a verb,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Japanese language. This form is separated into a preceding clause-verb and a following clause-verb. The organization of the preceding clause-verb and the succeeding clause-verb of the continuous use is categorized into two types: independent verb and attached verb.

In the form of 「Independent Verb + Attached Verb」, when there are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8.

verbs such as '*~hajimeru*', '*~dasu*', '*~kakeru*', '*~kakaruru*' in the attached verb, these kinds of verbs mean that they are phase verbs which express the phase of the beginning, when there are verbs such as '*~tsuzukeru*', '*~tsuzuku*', '*~tosu*' in the attached verb, these verbs mean that they are phase verbs which express the phase of the continuity and when there are verbs such as '*~owaru*', '*~oeru*', '*~ageru*', '*~agaru*', '*~yamu*' in the attached verb, these verbs express the phase of the completion.

We call them the situation verbs that the verbs express the beginning, continuity and completion of motion and matter among the attached verbs. The phase verb is connected with the preceding clause-verb which expresses continuous motion and matter. In the case that the preceding clause-verb is a momentary verb, it doesn't have the meaning of continuous process; therefore, the preceding clause-verb cannot describe the phase. However, it can express the phase if there is a compound agents in the sentence. A phase verb which is connected with a continuous verb and a momentary verb expresses the meaning and is used as follows.

- (1) '*~hajimeru*', describing 「the beginning」 of a phase, expresses that motion and matter are being started slowly; '*~dasu*', motion and matter are being started suddenly.
- (2) '*~kakeru*' expresses that motion and matter previously started are stopped by something; '*~kakaruru*', which is connected with the momentary verb, expresses that motion and matter are about to begin.
- (3) '*~tsuzukeru*' and '*~tsuzuku*' describing 「continuity」 express that

- motion and matter are being connected continuously and '*~tosu*' expresses that the agent takes a continuous action willingly.
- (4) '*~owaru*' describing 「completion」 expresses the end of continuous motion and matter and '*~oeru*' expresses that the agent of motion stops the action with strong will.
- (5) '*~ageru*' expresses the end of the indicated object as soon as motion stops and '*~agaru*' expresses the end state of the indicated object.
- (6) '*~yamu*', which is connected restrictedly with the verb which describes natural phenomena, expresses that motion and matter are stopped naturally.